

‘하나 된 마음, 제물포구의 새출발’

인천 중구, 19일 주민설명회

중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7일 구청 소나 무릎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환경 개선과 사업장 환경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12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운영방법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 사용방법 ▲환경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절차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및 활용 방법에 대한 눈높이 교육을 통해 대기배출 시설과 방지사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화학사고 발생사례 분석을 통해 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율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점을 안내하고 미부착 사업장에 대하여 조속한 설치를 당부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사업장 환경기술인의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환경사고의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업과 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중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도심 행정·생활 편의 ‘신흥

공공청사 건립 사업’ 첫 삽

중구 원도심 주민들의 행정·생활 편의를 증진할 ‘신흥동 공공청사’가 첫 삽을 떴다.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현)는 지난 10일 ‘신흥동 공공청사’ 부지(신흥동1가 79-2 일원)에서 ‘신흥 공공청사 착공기념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현 중구청장, 배준영 국회의원,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 구의원, 지역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신흥·담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지막이자 핵심 사업인 ‘신흥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지역 주민과 사업 관계자들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에 착공이 이뤄진 신흥동 공공청사는 연면적 5,988㎡(약 1,800평),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과 5층은 행정복지센터, 2층과 3층은 66대 규모의 주차장, 4층은 주민공동이용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 후에는 주민들이 행정, 문화, 복지를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복합청사로 자리매김하게 될 예정이다.

김정현 구청장은 “신흥동 공공청사 착공은 오랜 기간 낡고 협소한 청사를 이용해 온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드리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신청사를 통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드론으로 미래형 도시관리체계 본격 구축

재난·안전·환경 전 분야 효율성 극대화, 스마트 도시 인천의 초석 다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드론을 활용한 혁신적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재난, 안전, 환경 등 전 분야에서 행정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국비 20억 원, 시비 17억 9,500만 원 등 총 37억 9,500만 원을 투입해 드론 생태계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미래형 스마트 도시 인천 실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시험평가 지원 ▲스마트 드론 해양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인천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명실상부한 드론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은 딱적도 등 섬 지역 주민들의 삶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 딱적도에서는 드론으로 총 126건의 생활 물품을 배송했으며, 해안 쓰레기 취약 지역인 덕적면 북2리 파래금 해변에서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수거 시범사업도 진행했다. 또한 섬 내 우범지역 순찰과 응급 상황 대응에도 활용해 시민들의 안전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천시는 드론도시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영흥도 지역 행정서비스 지도 구축, 갯벌 해루질 안전관리 등 현장형 서비스를 통해 5월부터 10월까지 드론 순찰 중 고립자 6명을 구조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또한 드론 방역시스템을 통해 말라리아 모기 방제를 시행해 방역 효율성도 대폭 높였다.

‘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수요기관 맞춤형 도시관리 서비스를 발굴·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심곡천 수질 관리, 대기 및 악취 모니터링을 드론으로 수행하고, 시설 분야에서는 교량 영상데이터 구축 및 역사 청소 등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안전 분야에서는 자살위험 교량 4곳에 대한 드론 순찰을 통해 자살 예방 효과를 높였으며, F1 그랑프리 유치 홍보용 3차원 영상 제작 등에도 드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드론과 위성, 소나를 결합한 ‘스마트 드론 활용 해양환경 관리 시스템’은 해양쓰레기 분포를 정밀 관측하고 AI 기반 분석을 통해 최적의 수거 경로를 제시한다.

심하린 기자

남동구, 50세 이상 1인 가구 후속 재조사

남동구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추진한 ‘50세 이상 1인 가구 전수조사’와 관련해 후속 재조사를 마무리했다.

남동구는 지난해 전수조사(48,836가구) 당시 부재나 결번 등으로 확인하지 못한 5,542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8~10월 재조사를 벌였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총 155가구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 지원했다.

또한,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신규 위기가구 808가구를 추가 발굴, 이 가운데 431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각 동 복지담당자와 복지통장이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확인하고, 맞춤형 공작·민간서비스를 연계해 실질적 도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남동구는 조사 과정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 내역 등을 교차 확인해 주민의 생활반응을 점검하며 내실 있게 추진했다.

웅진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 개최



웅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10일, 웅진군청 중회의실에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정부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1월 중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군수·구청장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으로, 매월 정기 회의를 통해 인천시·군·구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와 군·구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정보 이동수단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도 채택하였다. 또한, ▲현대식 대피시설 리모델링 지원 건의 ▲북도면 신도리 광역 시도 68호선 도로 확장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문경복 웅진군수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정부부시장 등 인천을 사랑하는 분들의 웅진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10개 군·구가 함께 상생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제30회 강화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0일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30회 강화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생활개선강화군연합회(회장 김학순)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강화농업의 발전을 이끌어 온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이 가진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박용철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농에 전념하며 강화 농업을 지켜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농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HYDROGEN ENERGY

경기도의 미래

안전한 수소에너지로 열어갑니다.

경기도

GBSA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